

광주 시내버스 요금 하반기 인상 추진 논란

150원~200원 검토 ... 지하철 요금도 인상 불가피

준공영제 매년 수백억 재정지원에 서비스 개선은 뒷전

23일 물가대책회의

대중교통 요금 등 광주시 공공요금이 올 하반기부터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부터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될 예정인 데다 통합 요금 체계인 지하철 요금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3년째 인상 요구 압박이 제기된 도시가스 요금도 오를 조짐을 보인다.

하지만,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광주시의 막대한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개선과 업체의 투명경영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높아 시내버스 요금 인상과 관련한 후속 대책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23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요금 조정안은 13.7%에서 최대 17.2%까지다. 앞서 광주시는 시내버스 요금 인상과 관련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복수로 제시된 인상안은 교통카드 기준으로 150원과 200원이 오를 예정이다.

이 경우 1안은 현재 1100원에서 1250원으로, 2안은 1300원으로 오른다.

요금이 오르면 운송료 수입이 174억원과 218억원이 늘 것으로 전망됐다.

광주시는 2011년 7월 이후 5년째 동결해 요금 인상 압박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인건비와 연료비 등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재정 지원금 적자 폭이 커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준공영제에 따라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은 2010년 352억원에서 지난해에는 532억원으로 늘었다.



“내년엔 강진으로 청자 빛으러 오세요” 2017년 ‘남도답사 1번지 강진 방문의 해’로 선포한 강진군이 9~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31회 한국국제관광전에서 청자 물레시연 등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이번 국제관광전은 60여개국에서 500여개 기관·업체가 참가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지난 2007년부터 본격 지원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3152억원에 달한다.

광주시는 지하철 요금 인상 조정안은 제출되지 않았지만, 시내버스와 통합체계로 운영되는 만큼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택시요금은 2013년 3월 중형기준으로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인상됐다.

3년간 동결된 만큼 인상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도시가스는 2013년부터 인상요구가 있었으나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동결해 와 언제든지 인상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상하수도료는 요금 현실화 방침에 따라 2013년부터 인상되고 있는데다 2017년까지 오를 계획이어서 시민들의 부담이 적지 않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부담을 감안해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담양군 농축순환자원화 시설

보조금 20억 부적정 집행

감사원 감사서 적발

담양군이 농축순환자원화시설 설립 과정에서 국고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9일 감사원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13년 2월 28일 국고보조사업인 농축순환자원화 설립추진 사업자인 A업체(농업법인)가 총 사업비 69억원(국비 30%·지방비 40%·자비 30%)을 들여 하루 235t의 축분(우분·돈분·계분)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짓겠다고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뒤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다. 농림부는 같은 해 사업계획서를 승인한 뒤 국고보조금 20억7000만원을 집행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 군은 기존에 설치돼 있는 축분처리 시설만으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축분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데도 관련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이 지역에서 수거되는 하루 평균 축분의 양은 57t으로, 기존의 다른 축분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하루에 135t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업체는 군 전체 하루 축분 발생량을 계산하면서 아무런 근거 없이 365일이 아닌 250일로 나눠 산정한 뒤 실제 축분 발생량(하루 축분 발생량 633.2t→924.5t)보다 부풀려 계산하는 등 단지 안에 축분처리시설이 필요한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해당시설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보조금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해 통보하라고 지적했다. 또 담당 공무원에 대해선 주의조치했다. /이종행기자 glee@kwangju.co.kr

한국형 발사체 75t급 액체엔진 시험 성공

항우연, 나로도우주센터서 75초간 연소

한국형 발사체(KSLV-2)의 1단과 2단에 들어갈 75t급 액체엔진이 75초 동안 계획한 시간을 잘 연소하며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75t 엔진은 한국형 발사체의 핵심 기술이다. 연소 시험의 최종 목표 시간인 140초의 절반을 이번 시험에서 달성하며 한국형 발사체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은 지난 8일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75t 엔진을 75초간 연소시키는 시험이 계획대로 진행됐다고 9일 밝혔다. 지난 5월 3일 첫 불꽃을 내뿜은 75t 엔진은 이날 1.5초의 짧은 순간 연소가 진행됐다. 이어 5월 18일 시험에서는 30초간 연소했고, 이번에는 이의 2배 이상인 75초 동안의 연소시험을 무사히 마쳤다. 항우연은 이번 시험 데이터를 분석한 뒤 다음에는 140초 연소시험을 진행할지를 검토 중이다. 항우연은 “75t급 액체엔진의 연소 불안정 문제는 현재 어느 정도 해결했으며 대형 로켓의 추진제 탱크 제작의 어려움도 극복했다”고 밝혔다. 로켓의 추진제 탱크 두께는 일반적인 산업용 탱크 두께보다 매우 얇아 용접과정에서 쉽게



변형되는 것이 문제였다.

한국형발사체 사업은 길이 47.2m의 3단 로켓 전체를 우리 기술로 제작해 2020년 발사하는 것이 목표다. 제일 아래 1단은 75t 엔진 4개를 묶은 것이고 그 위에 75t 액체엔진 1개를 올린 것이 2단이다. 3단에는 7t급 액체엔진 1개가 들어간다.

지금껏 한국은 우주 로켓의 핵심 제조 기술을 외국에 의존해왔다. 2013년 1월 발사에 성공한 나로호도 일부는 러시아제 로켓이 들어갔다. 하지만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로켓 제조 기술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백기용기자 pboxer@연합뉴스

전남도 2가구 중 1가구 월소득 200만원 미만

“월 생활비 200만원” 74% ... 힘겨운 가계살림

도, 9500세대 ‘사회지표’ 조사

전남지역 2세대 중 1세대 이상은 지난해 한 달 수입으로 평균 100만~200만원을 번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가 지난해 도내 9500세대를 대상으로 ‘전남의 사회지표’(소득·소비 등)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월 평균 가구소득’을 묻는 질문에 전체의 52%는 ‘100만~200만원 미만’이라고 답했다. 이어 ‘200만~300만원 미만’이 19.4%를 차지했으며 ‘400만~500만원 미만’(7.5%)·‘500만원 이상’(7.4%) 등의 순이었다.

가구 소득의 주된 수입원으로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73.1%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정부보조 또는 사회단체보조’(10.3%)·‘자녀 또는 친척 지원’(7.9%)·‘재산소득 및 퇴직금 등’(7.9%) 등의 순이었다.

또 10세대 중 7.4세대는 한 달 생활비로 200만원 미만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월 평균 가구지출액’을 묻는 질문에 전체의 74%는 ‘200만원 미만’이

라고 답했다. ‘200만~300만원 미만’은 14.4%, ‘300만원 이상’은 11.5%였다.

도민 절반 이상의 월 평균 소득액이 100만~2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도민 상당수가 ‘번 대로 쓰는’ 어려운 가계살림을 꾸려가고 있다는 얘기다.

‘부담되는 생활비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응답자 28.8%가 식료품비라고 응답했다. 이어 ▲보건료비(17.9%) 주거비(13.4%) ▲교육비(12.9%) ▲교통비(6.0%) 등의 순이었다.

전통시장 이용률 조사에선 전체의 64.5%가 ‘이용한다’고 답했으며 이들 중 22.9%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주차시설이 확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건물현대화(16.7%)·고객편의시설확충(13.1%)·상인친화서비스 함양(12.5%) 등을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았다.

한편 전남지역 경제활동 참가율은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4년 기준 경제활동참가율은 62.8%(남성 73.5%, 여성 52.8%)다. 이는 2006년 64.4%(남성 75.6%, 여성 54.2%)보다 1.6%p 감소한 수치다. /이종행기자 glee@

전남도 해양수산 고문 박재영·김종식, 특보 김삼열 위촉

전남도는 9일 박재영 전 해양수산부 차관보와 김종식 전 완도군수를 해양수산 정책고문으로, 김삼열 전 목포지방항만청장을 해양수산 특별보좌관으로 위촉했다.

박재영 정책고문은 해양수산부에서 오래 근무하는 동안 요직을 두루 거쳐 수산분야 전문가로 정평

이 나 있다. 김종식 정책고문은 완도군수를 3선 역임하면서 전복 양식과 해조류를 특화시켜 완도군을 대한민국 수산물 생산 1번지로 자리매김토록 했다.

김삼열 특별보좌관은 지난 1979년부터 32년간 해양수산부와 국토해양부를 오가며 해양항만 정책을 직접 입안하기도 했다. /윤현석기자chadol@

특혜 같은 혜택

SUPER FESTIVAL

혜택 1) 5년 10만km 무상보증 업그레이드

혜택 2) RV전차종 특별지원 및 할부 프로그램

혜택 3) 개별소비세 30% 인하

코란도C

[5년간 소모성 부품 무상교환] (변속기, 오일필터, 에어컨필터, 워셔액필터 / 5회)

- 개별소비세 3.5% 지원 (당시비)
- 36개월 무이자 할부 (연이자0%)
- 월 할부금 부담 줄여주는 "국내 최초 7년 할부"로 월 최저 29만원부터!
- 최대 45% 차량가격 보장! 5년 후 중고차 반납할부로 월 최저 25만원부터!

티볼리

- 할부기간도 할부금도 내맘대로!
- My Style Edge 할부로 티볼리가 월 최저 12만원대 부터!

코란도 투리스모

[4WD 기본장착]

- 전동식 선루프 장착지원 (당시비)
- 선수를 제로, 3.9% 저리 이자부터! Best Choice 저리할부

티볼리 에어

- 할부기간도 할부금도 내맘대로!
- My Style Edge 할부로 티볼리 에어가 월 최저 14만원대 부터!

코란도 스포츠

- 10년 자동차세 28만 5천원 지원 (당시비)
- 할부기간도 할부금도 내맘대로!
- My Style Edge 할부로 코란도스포츠가 월 최저 약 16만원 부터!

쌍용자동차 대리점이 참신하고 유능한 영업인력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아래 해당 판매점에 연락 바랍니다.

귀업 문의

광주점 : 광주중앙 529-0003	서광주 383-3434	광주광산 952-3330	광주첨단 971-0990	광주빛고을 655-4001	동광주 515-1900	광주양산 573-8900
전남권 : 순천중앙 723-7100	목포중앙 277-8000	순천 745-3666	여수 683-1800	목포하당 285-7576	화순 371-3555	장흥 863-2600
나주 334-2727	목포중앙 473-3456	강진 433-3100	해남 537-3100	장성 395-0007	담양 383-5811	장안도 554-4545
영광 353-9500	보성 852-2892	광양 761-8900	동광양 791-0071	무안 454-0099	고흥 835-5050	진도 542-5888
여수구룡 642-1400	함평 324-3800					